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Franz Kline의 회화를 중심으로 -

정 주 은 · 김 혜 경*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현대 예술 분야의 각 장르들은 서로 중첩되는 표현영역이 확대되어 점차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하며, 서로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예술이 접근하기 어려운 독립된 하나의 개체에서 벗어나 실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면서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순수예술과 패션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 중 한명인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의 회화를 분석하여 1950년대 이후 그의 대담하고 구조적이며 건축적인 굵은 선 획으로 표현되는 회화를 패션디자인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프란츠 클라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직선, 사선들로 이루어진 선들은 하나의 건축적인 구조를 만들고 배경의 여백을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하면서 구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프란츠 클라인은 이를 통해 광대한 공간과 대조되는 강한 긴장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가의 정신과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회화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패션의 모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패션이 예술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를 모티브로 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의 표현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프란츠 클라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붓의 휘두름과 색채의 표현을 모티브로 구성하고 이를 작품으로 제작함으로써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가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모티브로 적합한 표현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회화의 부분과 전체, 그리고 기법을 패션의 표현 요소로 개발함으로써 회화와 패션의 결합을 통해 패션디자인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추상표현주의, 추상회화, 프란츠 클라인, 패션디자인, 회화와 패션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혜경, hestia19@naver.com

접수일: 2015년 10월 1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16일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1세기의 패션은 일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착용자의 내면과 외면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조형성을 가진다. 또한 현대의 예술은 그 시대의 문화와 일상을 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통해 보는 이를 감화시킨다. 이러한 패션과 예술의 접목은 본래의 의미에서 더 발전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탄생시킨다.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순수 예술과 패션과의 접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독창적인 패션의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예술과 패션의 만남은 예술의 미적 표현을 단순 차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새로운 표현 방법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의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패션을 통한 예술의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순수 예술과 패션디자인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요소가 된다. 특히 회화와 패션의 결합은 외부로 드러나는 작가의 표현적 특성을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작품 속에 내제된 작가의 정신을 패션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단순히 그려내는 것이 아닌 작가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예술 사조로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프란츠 클라인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함께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로 구조적인 형태의 선으로 이루어진 조형적인 액션페인팅을 개발하였다. 그의 회화는 건축, 교각 등과 같은 구조물에서 영감을 얻어 거칠고 확고한 선으로 나타났다.

추상표현주의를 패션에 응용한 선행연구(강희명, 김혜경, 2009¹⁾; 김선영, 2009²⁾; 정홍숙, 1991³⁾)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를 접목한 패션디자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를 분석하여 1950년대 이후 그의 대담하고 구조적이며 건축적인 굵은 선획으로 표현되는 회화를 패션디자인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가의 정신과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회화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패션의 모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패션이 예술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프란츠 클라인 회화와 액션페인팅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패션디자인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 중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소재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추상표현주의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회화가 현대 패션에 응용된 사례를 사진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 제작은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구조적인 형태의 조형적인 선과 면, 색채를 중심으로 디자인에 접목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란츠 클라인 회화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대담한 선의 구조를 가진 흑백회화를 모티브로 재구성하여 그의 강렬하고 구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추상표현주의

1) 추상표현주의 개념

추상표현주의라는 용어의 근거는 미술평론가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1929년 미국에서 전시하고 있던 칸딘스키의 초기 추상작품에 대해 언급하면서, “형식은 추상적이지만 그 내용은 표현적이다.”라고 지적한데서 비롯되었다.⁴⁾ 추상표현주의는 좁은 의미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어난 후 1940년대부터 1950년대 까지 미국의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⁵⁾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유럽의 앵포르멜(Informel)⁶⁾과 그 주변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표현주의적인 양식을 말한다.⁷⁾ 추상표현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형태나 무의식에서 생겨난 우연한 결과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는 20세기 미술의 요소들을 기본으로 작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로는 프란츠 클라인 이외에도 잭슨 폴록,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아돌프 고틀리브(Adolph Gottlieb),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바넷 뉴먼(Barnet Newman)으로 이들은 1940년대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전개하였다.

2) 추상표현주의 특성

추상표현주의는 야수파, 표현주의, 다다이즘, 미래주의, 초현실주의로 이어지는 계보와 인상주의, 입체파, 기하학적 추상 등 근대미술의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추상표현주의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프란츠 클라인을 비롯해 잭슨 폴록, 윌렘 드 쿠닝으로 대표되는 액션페인팅으로, 이들은 몸의 움직임에 의해 표현되는 효과와 재료의 질감에 따라 변화하여 나타나는 양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액션페인팅의 드리핑(dripping) 기법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캔버스 위에 떨어트리거나 붓는 기법으로,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 놓고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는 형태로 시작하여 무의식성이 강한 행위로 표현되었다. 잭슨 폴록이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회화의 형태를 표현하였고 이는 1940년대부터 주목을 끌었다<그림 1>. 타시즘(tachisme)은 유럽의 추상경향인 앵포르멜의 한 형태로 번지는 효과를 강조하는 추상화 기법이다. 얼룩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으로 서정적인 성격표현을 통해 유기적인 공간 개념을 만들어 냈



<그림 1> Jack Pollock, No. 19, 1948



<그림 2> Sam Francis, Untitled, 1972



<그림 3> Franz Kline, New York, 1953



<그림 4> Marc Rothko, Magenta, Black, Green on Orange, 1949

(출처: 『회화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연구: 추상표현주의 기법을 중심으로』, 2004, pp.26-33.)⁸⁾

다<그림 2>. 타시즘은 우연에 의한 효과를 표현하였고 이는 196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활자나 서예의 형태를 가진 서체추상으로 기호나 상징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작업하여 표현하였다. 르네상스 운동 이후 회화에서 사라졌던 캘리그래피는 역동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 중요시되면서 20세기에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게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그림 3>.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경향 중 두 번째는 색면추상(Color-Field Abstract)⁹⁾으로 마크 로스코, 아돌프 고틀리브, 바넷 뉴먼 등이 대표적이다. 색면추상은 작가의 성격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색채 형태를 동일하게 하거나 넓은 색면을 이용하여 추상적 상징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그림 4>. 색면추상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어 ‘후기 회화적 색면추상’¹⁰⁾으로 발전하였다. 추상표현주의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작가의 내면세계를 의미 있는 함축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2. 프란츠 클라인

1)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형성배경

프란츠 클라인은 1910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드로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31년~1935년 보스턴의 아트 스튜던츠 리그(The Art Students League)에서 미술 수업을 받고, 1936년~1938년에 런던의 허드리(Heatherly) 미술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1938년 영국인 아내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¹¹⁾ 빠른 스케치가 장점이었던 그는 보스턴 대학시절에 삽화가로서의 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헨리 푸셔(Henry Fouchier), 프랭크 다키(Frank Darcy), 존 크로스맨(John Crossman)들에게 사사했으며 그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

프란츠 클라인은 평생 동안 만화에 대한 애정이 강했으며, 만화가들의 캐릭터를 연구하고 스타일을 모방한 것이 후에 추상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 역동적인 구도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다.¹²⁾ 보스턴에 있는 동안 그는 붓으로 그리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펜과 연필을 편안히 다루게 되었다. 런던에서의 학업을 통해 영국 화가들에 대한 흥미를 느꼈으며 1940년~1950년대의 작품에서 영국 풍의 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산업도시 경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광산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둥이나 금속 구조물들은 그의 태생이나 추상화에도 큰 영감을 불어 넣어준 것으로 보인다.¹³⁾ 뉴욕의 고가철도는 그의 추상작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인 1948년까지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리하이톤(Lehighton)과 그 주변 상황은 1940년대 구상미술의 소재와 1950년~1960년대 흑백 추상화들의 작품 소재를 제공한다. 1946년 리하이톤의 재향군인회로부터 마을의 벽화를 주문 받았다. 이를 통해 클라인은 그의 드로잉을 큰 규모로 적용시키는 문제에 눈뜨게 했다.¹⁴⁾ 클라인은 1943년 뉴욕에서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윌렘 드 쿠닝과 잭슨 폴록을 만났다. 그는 두 미술가와 함께 교류하며 회화에서 행위적 표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다.¹⁵⁾ 1942년~1945년에는 전람회에 참가하며 추상표현주의 현대화가의 작품들에 흥미를 느끼면서 본격적인 추상작업을 하게 된다.

1948년에는 형태와 색채뿐만 아니라 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게 되는데 『니진스키의 초상』<그림 5>에서 20년간 그려온 구상화에서 추상화로 완전히 전이한다. 프란츠 클라인은 드로잉을 기초로 형태의 표면을 가로지르면서 자신의 관심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러한 방식은 구성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다시 재구성하여 초기 추상화에 표현하였다. <그림 6>와 같은 작은 스케치의 특징

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이미지와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여 표현하는 기법은 프란츠 클라인의 1950년대 추상화에 나타난다. 이처럼 추상작품을 위한 꾸준한 시도는 계속되었고, 거친 철골과 같은 구조적인 선으로 그리는 캘리그래픽(calligraphic)한 작품을 시작했다.¹⁶⁾ 이러한 형성 과정을 거쳐 프란츠 클라인은 잭슨 폴록과 윌렘 드 쿠닝의 뒤를 잇는 추상표현주의의 화가가 되었다. 프란츠 클라인이 추구했던 추상표현주의는 근대 회화의 선구를 유럽으로부터 되돌리고 뉴욕을 새로운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2) 프란츠 클라인 작품세계

프란츠 클라인은 추상표현주의의 제 2세대 작가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도시의 힘찬 모습과 생동감을 나타내려 했다. 클라인은 1950년에 선의 표현을 확장하여 회화작품을 제작했다. 커다란 캔버스에 빨리 마르고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페인트인 검정 에나멜을 사용하였으며 붓을 사용하여 흑과 백의 강한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에서 목직함 검은 색으로 도시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뉴욕의 어둠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¹⁷⁾

클라인의 특징적인 추상회화의 기법이 나타나기 전인 1950년까지 그는 구상화가 또는 사회적

사실주의 화풍의 인물과 도시의 풍경을 그렸다. 1949년 이 그림 중 일부를 투영기에 확대시킨 것을 보다가, 자유로우면서 추상적이고 규모가 큰 이미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 암시는 그를 추상표현주의의 화가로 바꿔 놓았다.¹⁸⁾ 클라인의 회화는 색채를 배제하고 흰색과 검은색의 세계에서 함축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액션페인팅이나 앵포르멜과 같이 하나의 행동, 하나의 기호 또는 실존의 증언으로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흔적을 남겼다. 클라인의 표현기법은 드리핑과 튀기기(spatter)를 사용하여 처음에는 잭슨 폴록의 기법과 비슷하였으나 폴록의 방법과는 달리 붓의 움직임마다 항상 계획적인 존재 이유가 있었다. 그의 작품이 순수하게 즉흥적인, 단 한 번의 움직임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에 걸친 스케치와 종이 조각을 활용하여 습작 후에 이루어졌다<그림 7><그림 8>.¹⁹⁾ 클라인의 그림들은 추상인 동시에 실존주의적이다. 그는 자신의 회화를 ‘시추에이션(situation)’이라고 자주 말했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선을 칠하게 되면 시추에이션이 시작된다는 것이다.²⁰⁾ 그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최종적인 그림에는 화가의 감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린다는 움직임 자체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제스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²¹⁾



<그림 5> Nijinsky, 1947
(출처: 'Franz Kline', 2002, p.70.)



<그림 6> Four Studies 1945-47
(출처: 'Franz Kline', 2002, p.78.)



<그림 7> Untitled, 1952
(출처: 'Franz Kline', 2002, p.156.)



<그림 8> New York Times
July 16, 1950
(출처: 'Franz Kline', 2002, p.93.)

프란츠 클라인은 1950년에 뉴욕의 이건 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거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그가 새롭게 구사하기 시작한 화법으로 그린 것들이었다. 그 그림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1950년대에 클라인의 명성은 순식간에 커졌다. 그는 추상표현주의의 제 2 세대의 선봉으로 인정받았다. 제 2 세대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품은 완전히 새 시대에 속한 것이었고, 1940년대의 제 1 세대들이 받았던 초현실주의적인 영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²²⁾ 프란츠 클라인은 영국에서 학생 시절에 공부한 대로 1950년-1957년까지 회화를 조각처럼 나타냈고, 이후에도 캔버스의 가득 찬 공간에는 조각 난 구조나 인간, 동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리물들이 존재하였다<그림 9>. 1951년 이후의 작품은 추상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정적이지 않은 양면성이 있었다. 항상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처럼 상상이 되던 작업은 움직임의 시작을 ‘배경’이라고 말했고, 화면을 구성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배경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시작하려고 노력했다<그림 10>.²³⁾

프란츠 클라인은 작품의 주제를 본질적인 논리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며, 작품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실용적이었다. 그의 작품은 단번에 그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선의 반복을 통해 작은 스케치들이 모여 커다란 규모의 작

품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는 추상적인 작품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표현하였고 그의 내재된 감정을 빛의 움직임으로 나타냈다.

3)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조형적 특성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조형적 특성은 그의 회화가 구상적인 회화에서 추상적인 회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의 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선과 형태

1950년대에 흑백회화작품들을 전시한 프란츠 클라인은 자신의 첫 개인전에서 거친 빛의 효과로 관객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흑과 백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그려진 흑백회화의 구조들은 강한 실루엣으로 해석되고 있는 검정 형태와 함께 흰색을 상투적인 배경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또한 검정 형태들은 화면의 골격을 이루며 건축적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그림 11>.²⁴⁾ <그림 12>과 같이 클라인은 거대하게 늘어뜨린 중국의 한자를 상기 시키게 하는 회화적인 선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형문자와 유사하고 거대한 크기의 거칠고 억센 표의 문자 추상과 같이 흰 바탕 위에 검은 선으로 휘둘러 강한 효과를 나타냈다.²⁵⁾

프란츠 클라인의 액션 페인팅의 작업은 거대한



<그림 9> Eduardo Paolozzi, 1957
(출처: 'Franz Kline', 2002, p.107.)



<그림 10> Black and White, 1951
(출처: 'Franz Kline', 2002, p.104.)

흑백화면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힘으로서 사실적인 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 넘어서 마치 한자필법에 있어서의 초서필법²⁶⁾과도 같이 ‘최소한의 획’을 갖고 최대한의 구축적인 선을 하얀 캔버스 위에 직선과 원형으로 검은색만을 사용하여 그려서 고착시킨 견고한 그림을 그렸다.²⁷⁾ 처음에는 펜과 잉크그림을 많이 시도하여 나중에 그의 서체 풍 회화에 바탕을 형성해 주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그림들은 검정색의 넓은 선들이 흰색의 공간처리와 대조적인 공간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였다. 프란츠 클라인의 추상적인 표현은 배경의 여백을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한다. 그리하여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검은 선들과 형태들은 효율적으로 배열된 조형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색채

1950~1956년에 프란츠 클라인은 흑백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흑백회화에 열중했다. 클라인은 공업용 에나멜 페인트를 가지고 커다란 캔버스에 작업하였다. 그는 전시회를 통하여 흑백화가로 알려지게 되면서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흰색 캔버스를 가져다 그 위에 검정색 기호를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검정색뿐만 아니라 흰색으로도 그린다. 그리고 흰색 역시 중요하다. 동양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무한 공간이고 이는 채색된

공간이 아닌 우리들의 작품에 채색된 것이다”²⁸⁾라고 말했다. 이것은 동양화에서는 흰색 여백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프란츠 클라인은 그림을 검은색의 비어 있는 바탕위에 흰색이 그려져 있는 구조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흑과 백을 사용한 추상작품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과 백은 그가 즐기는 색채로서 똑같이 중요시 하였다. 프란츠 클라인은 “색깔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No Colors, No Problems)”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의 이러한 회화관은 클라인의 작품을 처음 보면 비개인적인 구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곧 검은 두꺼운 선들은 구조적이면서도 원시적인 구성처럼 보여, 개인적인 행위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⁹⁾ 프란츠 클라인은 작품 활동 후반에 색채를 도입하여 예술의 폭을 확장시켰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색채의 사용은 검정과 흰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표현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그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색채를 무차별적으로 쓰지 않았으며 페인트의 영역과 촉감을 합성시켜 추상화 양식을 이루었다. 이는 색채를 사용한 작품이 공간의 표현에 얼마나 함축적이고 절제되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었다 <그림 13><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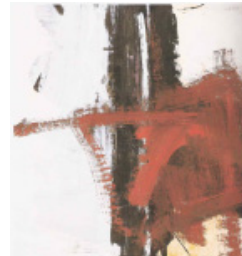
그의 회화에 색채가 도입되고 흑백회화와 함께 한층 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색채가 그의 작품에 새로운 측면을 더해 줄 무렵 사



<그림 11> Lehigh V Span, 1959
(출처: 『Franz Kline』, 2002, p.123.)



<그림 12> Figure eight, 1952
(출처: 『Franz Kline』, 2002, p.78.)



<그림 13> Untitled, 1961
(출처: 『Franz Kline』, 2002, p.152.)



<그림 14> Scudera, 1961
(출처: 『Franz Kline』, 2002, p.7.)

망하면서 색채가 그의 작품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에는 부족했다. 단지 남겨진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클라인의 작품은 열정적이고 순수하며,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3. 회화를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이너들은 창의적인 개성표현과 디자인의 독창성을 위해 회화에서 도입된 독특한 패턴과 텍스타일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형태와 색채를 밀접하게 연관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현대 조형 예술의 각 장르들은 패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조형적

인 면을 추구하며 그 표현 영역을 확대 시키고 있다. 추상주의 화가인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는 회화, 의상, 직물, 장식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형예술을 시도하였고, 1914년에는 자신의 회화 작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동시적 의상(robe simultance)’을 제작하여 의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 ‘동시적 의상’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치위에 조형적인 가치를 의상에 부여하여 실행한 것이다. 폴 푸아레(Paul Poiret)와 소니아 들로네는 예술과 의상의 만남을 시도하면서 푸아레는 예술의 실용화를 시도하였고, 들로네는 의상의 예술화에 더욱 접근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³⁰⁾

회화를 의상에 도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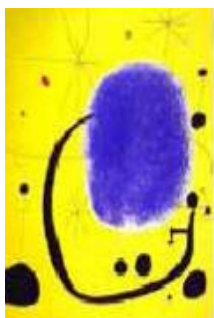
<그림 15> Yves Saint Laurent 1965
(출처: 『Art & Mode』, 1999, p.32.)



<그림 16> Keith Haring, 1980
(출처: 『Art & Mode』, 1999, p.34.)



<그림 17> Castelbasjac, 2002 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8> Joan Miro, 1893
(출처: samsungdesign.net)



<그림 19> Marni, 2003 F/W
(출처: samsungdesign.net)



<그림 20>Kandinsky
(출처: samsungdesign.net)



<그림 21> Betty Jackson, 2004 S/S
(출처: samsungdesign.net)



<그림 22> Andy Warhol
(출처: www.naver.com)



<그림 23> House of Field 2003 S/S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4> Andy Warhol 1986
(출처: www.naver.com)



<그림 25> Castelbajac 2009 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있다.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회화를 의상에 도입하였으며, 폴 푸아레는 직물 디자인을 화가에게 의뢰하였다. 또한 디자이너 겸 화가였던 소니아 들로네는 자신의 회화를 직접 의상에 도입하여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였다.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을 응용하여 회화를 의상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꼽히는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특정 화가와 예술운동에 근거해 컬렉션의 주제를 정하기도 했다. <그림 15>은 이브 생 로랑이 회화를 적용했던 의상의 대표작으로 삼원색과 무채색,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분할된 면 구성을 가진 '몬드리안 룩'을 선보이며 기하학적 구성을 단순하고 직선적인 원피스에 재현하였다. 카스텔 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은 추상예술의 개척자라 불리는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 회화의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프린트한 작품을 발표했고, 2002년에는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낙서화<그림 16>를 의상에 접목시켰다<그림 17>. 2003년 마르니(Marni)의 컬렉션에서는 조형적인 미로(Joan Miro)의 회화<그림 18>를 재해석 하여 원피스의 모티브로 사용하였고<그림 19>, 간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회화<그림 20>를 2004년 베티 잭슨(Betty Jackson)의 S/S 컬렉션에서 프린트 기법으로 재해

석하여 발표하였다<그림 21>. 시각주의 예술운동의 선구자이며 팝아트의 대표적인 화가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그림 22><그림 23>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재해석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림 24>는 2003년 하우스 오브 필드(House of Field)의 컬렉션에 선보였던 작품이며, <그림 25>은 2006년 카스텔 바작의 컬렉션에서 앤디 워홀의 자화상을 의상 전면에 프린트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회화에서 가져온 모티브들이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을 통해 재해석 되어 표현되었고, 그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한하다. 또한 회화의 여러 가지 요소와 조형적인 특성들이 디자인에 적용되면서 풍부한 창조성과 독창성을 지닌 작품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III. 작품 제작 및 해석

1.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화가 중 한 명인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였다. 그의 작품 중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난 추상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구조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조형적인 선과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재구성한 의상을 제작하였다. 프란츠 클라인은 대담한 굵은 선 획과 구조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흑백회화를 통해 작품세계를 구현하였다. 특히 1950년대를 기준으로 두드러졌던 흑백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조형요소를 분석하고, 그의 작품을 재현, 확대, 변형, 과장 등의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의상에 적용하였다.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된 회화는 거친 붓의 효과를 가진 검정색 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선, 사선들로 이루어진 그 선들은 하나의 건축적인 구조를 만들고 배경의 여백을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하면서 조형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프란츠 클라인은 붓의 휘두름, 직선, 사각형, 여백 등의 조형적 요소를 통해 도시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기하학적 외형을 뛰어넘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회화의 특징적인 선과 형태를 작품의 모티브로 표현하여 회화에서 나타나는 대담하고 건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모티브에 활용된 색채는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에서 중요시되는 흑백회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프란츠 클라인은 그의 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검은색 선과 함께 흰색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흑과 백은 동등한 가치 지닌다고 말했으며 작품 활동 후기에 흑과 백이 아닌 다른 색채의 사용으로 표현영역을 넓히고자 했다. 다음의 특징을 바탕으로 검정색을 모든 작품에 주된 색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의상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하였는데, 이 색채는 프란츠 클라인의 색채 작품에서 사용된 색채들 중 모티브와 의상디자인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색채 특성을 모티브로 나타내면서 강렬한 흑백의 표현과 색채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제작 시 모티브 표현과정에 있어서는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현대자수기법을 사용하였다. 직물을 길게 자

른 페브릭 테이프를 활용하여 프란츠 클라인의 굵은 선을 표현하였고, 작품의 회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스티치 기법, 양모 펠트와 니들 바늘을 이용한 핸드 펠트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클라인의 표현기법인 액션페인팅을 바탕으로 Dylan 염료를 이용한 핸드 페인팅기법을 활용하였다. 작품의 바탕 직물은 모티브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모직으로 된 표면감이 있는 펠트 원단과 니트 원단을 사용하였다. 작품의 실루엣은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모티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심플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다. 의상의 중심에 자리하는 모티브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H라인과 A라인의 실루엣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프란츠 클라인 회화의 구조적인 선과 추상적인 회화의 특징을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회화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아가 패션과 예술의 접목을 통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작품 제작 및 해설

1) 작품 1

작품 1은 프란츠 클라인의 1960년대 작품 『Black and White No.2』로 제목 그대로 흑백회화의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수직으로 길고 무겁게 내려오는 선이 특징적이며 수직을 가로지는 수평선이 작품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제목과 같이 모티브 작업은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한 테이핑 자수로 선의 강약을 조절하여 회화의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페브릭 조각과 코튼 테이프로 모티브의 수직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코튼사로 수직, 수평의 느낌을 더욱 강조했다. 모티브의 가장자리에 스티치자수를 놓아 회화에서 나타나는 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2) 작품 2

작품 2의 모티브로 활용된 작품은 1960년 제작된 『Study for 'Horizontal Rust』로 사선으로 밀치는 듯한 선의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가 부각되는 작품이다. 사선으로 뻗어나가는 선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회화에서 나타나는 색채인 레드와 함께 블루와 옐로우를 추가하여 모티브를 표현하였다.

회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표현하면서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사선의 밀치는 듯한 회화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코튼 테이프를 의상의 전면에 부분적으로 강약을 조절하여 배치하고 코튼사로 직선적인 선의 느낌을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표 1> 작품전개도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
모티브 (출처: 『Franz Kline.』)				
	『black& white No.2』, 1960	『Study for 'horizontal rust』, 1960	『Scudera』, 1961	『Red painting』, 1961
소재	울 100%, 코튼테이프, 양모펠트, 울 니트			
기법	핸드페인팅, 펠팅, 테이핑, 스티치			
색채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레드, 옐로우, 네이비	블루, 블랙, 레드	레드, 블랙
소재 개발				
조형적 특성	굵은 선으로 표현되는 건축적구조	사선으로 밀치는 선의 표현	색의 대비와 검은 사각형의 건축적 구조	직선과 사선으로 구성된 사각형
작품 사진				

3) 작품 3

프란츠 클라인의 색채 작품 중 1961년 제작된 『Scudera』를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색채 작품 중 하나인 『Scudera』는 붉은 색과 푸른색의 대비와 검은 사각형이 건축적인 돔(dome)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의상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회화를 확대, 변형하여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사각형을 크게 확대하여 테이핑 자수로 수직적인 회화의 표현을 더욱 강조하고 붉은색의 터치를 더욱 길고 크게 확대하여 의상의 포인트로 적용하였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수직, 수평의 느낌을 디자인에도 참조하여 비대칭 여밈으로 디자인하고 평면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 좌측에 원단을 겹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4) 작품 4

프란츠 클라인의 색채 작품 중 가장 마지막에 제작된 『Red Painting』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Scudera』와 함께 그의 가장 대표적인 색채 작품인 『Red Painting』은 프란츠 클라인의 사망 후 화실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수직과 수평의 이미지가 합쳐진 사각형의 형태가 특징이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사각형의 형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회화를 확대, 변형하여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사각형의 형태와 내부의 직선, 사선의 선을 테이핑 자수로 표현하여 회화에서 나타나는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강조하였다. 핸드 페인팅으로 강렬한 검은 선의 기본을 만들어 주고 코튼 테이프와 패브릭 조각, 코튼사로 모티브의 형태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1, 2, 3, 4의 전개도는 <표 1>과 같다.

IV. 결 론

현대의 예술과 패션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조형적인 면을 추구하며 그 표현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개성표현과 디자인의 차별화를 위해 회화에서 도입된 독특한 패턴과 소재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형태와 색채를 밀접하게 관련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추상표현주의는 작가의 내면을 중요시하며 자유로운 형식과 우연에 의한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로는 몸의 움직임에 의해 표현되는 효과와 재료의 질감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의 액션페인팅을 전개한 잭슨 폴록, 프란츠 클라인, 윌렘 드 쿠닝과 추상적 상징, 이미지를 넓은 색면으로 표현한 색면추상의 마크 로스코, 이돌프 고틀리브, 바넷 뉴먼이 대표적이다.

프란츠 클라인이 추구했던 추상표현주의는 붓을 사용하여 흑과 백의 강한 대비가 돋보이는 표현 기법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표현하였고 내재된 감정을 붓의 움직임으로 나타냈다.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은 단숨에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의 반복을 통해 작은 스케치들이 모여 커다란 규모의 작품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그의 서체 풍 회화에 바탕을 형성해 주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그림들은 검정색의 굵은 선들이 흰색의 공간처리와 대조적인 공간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를 모티브로 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의 표현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프란츠 클라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붓의 휘두름과 색채의 표현을 모티브로 구성함으로써 프란츠 클라인의 회화가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독창적인 모티브로 적합한 표현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예술과 패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간극을 줄이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패션의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프란츠 클라인은 작품 활동 후기에 표현 영역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흑백회화에 색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한적인 색채 사용을 디자인에 적용하여 절제되고 모던한 이미지를 색채의 표현을 의상에 나타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회화에 사용된 색채의 함축적 의미를 현대 패션 디자인에 사용하여 화가의 의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하고 현대 패션산업 트렌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란츠 클라인의 추상회화에서 나타나는 대담한 선과 절제된 색채 등 회화의 특징적인 표현을 의상의 모티브로 활용함으로써 회화의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회화의 부분과 전체, 그리고 기법을 패션의 표현 요소로 개발함으로써 회화와 패션의 결합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패션디자인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을 통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¹⁾

참고문헌

- 1) 강희명, 김혜경 (2009). 현대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1), pp.61-75.
- 2) 김선영 (2009). 21세기 패션에 수용된 추상표현주의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9), pp.1430-1440.
- 3) 정홍숙 (1991). Action painting이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논총, 5(-), pp.69-83.
- 4) 백대진 (2002). 추상표현주의에서의 Image의 우연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5)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 제2차 세계대전 후,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추상회화의 경향으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1952년 비평가 해럴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에 의해 명명되었다.
- 6) 앵포르멜(Informel):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서정적 추상회화의 한 경향으로 정형화되고 기하학적인 추상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다. 앵포르멜이란 ‘비정형’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액션페인팅과 달리 유럽의 추상예술을 의미한다.
- 7) Bernard, S. M. (1985). The history of art, New York: Exter Books, p.42.
- 8) 한정희 (2004). 회화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추상표현주의 기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33.
- 9) 색면추상(Color-Field Abstract): 추상표현주의의 한 흐름으로 단순하고 강렬한 색채를 통하여 작가들이 도달하고자 한 승고의 이미지를 넓은 색면 위에 나타내었다.
- 10) 후기 회화적 색면추상: 1964년 클리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가 명명한 것으로 로스엔젤레스 주립 박물관의 종합 전람회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 11) Stephen F. (2008). 501 Great Artists, 박미훈 옮김 (2009). 서울: 마로니에북스, p.426.
- 12) 한선희 (1998). Flanz Kline의 작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13) 백대진. 앞의 책, p.44.
- 14) 한선희. 앞의 책, p.11.
- 15) 데브라 브리커 발켄 (2005). 추상표현주의, 정무정 옮김 (2006). 파주: 열화당, pp.52-53.
- 16) 한선희. 앞의 책, pp.11-12.
- 17) 송미숙 (1982). Mark Tobey와 Franz Kline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18) 심현삼 (1996). 서예와 서예적 추상회화, 동대논총, 26(1), p.606.
- 19) 백대진. 앞의 책, pp.44-45.
- 20) 김광우 (1997). 폴록과 친구들, 서울: 미술문화, p.170.
- 21) 박기웅 (2003). 현대미술이론2, 서울: 형설출판사, p.61.
- 22)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1996) . 20세기 시각예술, 김금미 옮김(2002). 서울: 예경, p.261.
- 23) 한선희. 앞의 책, p.16.
- 24) 안중갑 (2002). 문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서예와 부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5.
- 25) 김남숙 (2004) . 문자의 조형성을 통한 회화적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 26) 한자의 전서, 예서 등의 자획을 생략하여 흘림글씨로 쓴 서체.
- 27) 한선희. 앞의 책, p.13.
- 28) 안중갑. 앞의 책, p.55.
- 29) 정동혜 (1982). Mark Tobey 와 Franz Kline 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5.

- 30) 이은영 (1990). 회화를 응용한 현대의상: 칸딘스키의 비구상회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31) 정주은 (2011). Franz Kline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현대자수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A Study on Fashion Design with Application of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

- Focused on Franz Kline's Painting -

Jung, Ju Eun · Kim, Hye Kyung⁺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overlapped expression area of each genre of modern arts expands and its border has been vague or tends to be blended. As art becomes part of a real life away from an inaccessible separated entity, there has been active grafts between fashion and high arts such as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and so on. Accordingly, this study selected the painting of Franz Kline(1910~1962) who is a representative painter of Abstract Expressionism as motif. This study tried to make 'Black-and-White Painting' after 1950, which expresses his bold and structural thick stroke realized in clothes. The lines composed of straight line and biased line in the painting of Franz Kline make one architectural structure, showing structural image by utilizing the blank of the background in the active form. In this way, he tried to express a strong tension, which contrasts with a vast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reative clothing through expressing materials suitable for fashion, applying the spirit of the artist and its plasticity and to show that fashion can be another way of expression of art. This study could express Franz Kline's bold and structural image of painting as motif of clothing by combining his architectural line and characterized expression of 'Black-and-White Painting' with fashion through modern embroidery techniques. Likewise, it turns out that the creation of novelty through combination of painting and fashion is indefinite by developing a part or whole of painting into the motif of clothing.

Keyword : Abstract Expressionism, abstract painting, Franz Kline, fashion design, painting and fashion

